

TOGETHER Harim



샐리의 법칙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나고 나쁜일이 있더라도 전화위복이 되는
일상 속 반복성을 표현하는 경험법칙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예상하지 않은 행운이 줄줄이 이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샐리는 1989년에 제작된 라이너 Rob Reiner 감독의 미국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에서 계속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는 여주인공 샐리의 모습에서 빌려 온 것 입니다.

샐리의 법칙을 염두에 둔 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행운을 기대해 봐요 🍀

02	기획포커스 시사 상식 사전: 심리편 목차	09	하림 뉴스 2024년 12월	20	이달의 신제품
04	신년사 김홍국 회장님 정호석 사장님	14	트렌드 리포트 이달의 트렌드는?	21	슬기로운 MZ생활
08	새해 소망 하림 뱀띠 직원들의 을사년 새해 소망	16	하림인 이야기 법무개선팀	22	눈으로 보는 하림
		18	전국 닭 요리 이우철한방누룽지삼계탕	23	쉽게 보는 하림 용어 사전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5년 1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www.harim.com



하림그룹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의 밝고 활기찬 기운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다짐으로 시작되는 어느 새해와 달리, 국내외의 상황들이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하고, 경영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이 잠시도 멈추지 않는 바다처럼, 경제상황은 늘 움직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시장의 본질적 속성이며, 시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장의 역동성을 연료삼아 끊임없이 발전하며,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비즈니스의 본질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좋은 기업'은 시장에 가치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이윤을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존재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한편, 내적으로는 세밀한 관리를 통해 낭비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호혜의 온정을 가져야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차가운 이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매출을 늘린다면 제 값을 받지 않거나, 불합리한 채무를 방치한다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거래 고객마저 함께 망치게 됩니다.

시스템화된 관리를 통해, 개인과 조직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거래에서 잘못된 온정주의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일을 쉽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HBH(Harim Behavioral Habit)를 도입하고,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BH는 일일관리를 통해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며, 생각과 행동이며, 의사결정의 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HBH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개인과 조직이 함께 탁월해지는 실증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리더가 먼저 HBH를 선도하는 조직에서는 일일관리의 실행습관이 빠른 속도로 확산해 나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 고정관념과 낡은 관행들을 신속하게 HBH로 바꿔 나감으로써 탁월함과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림그룹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또 일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옳은 것을 찾아내는, 실사구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을 일삼고, 실질과 현장을 외면하면 관리는 부실해지고, 효율은 낮아지며, 애써 만들어 놓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관리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프로세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관리는 관리라 할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관리 또한 관리라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세련된 관리, 질높은 경영은 현장의 관리를 통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실사구시와 일일관리의 실행습관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든 기업 활동은 시장경제를 규정하는 법령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법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며, 우리는 윤리경영을 통해 도덕 준칙들까지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ESG 경영 또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탄소저감과 자원 재활용은 인류 공동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일 뿐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입니다.

투명한 경영,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도 하림의 DNA인 '끝없는 도전'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One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공정과 제품, 행동과 지식들이 데이터화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 집니다.

이를 통해 일일관리가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선제적 의사결정과 신속한 행동이 습관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One ERP를 통해 생성·확대되는 데이터들은 독자적인 인공지능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외 사업장의 모든 하림그룹 가족 여러분!

다소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시장 상황들은 머지않아 안정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시장교란과 왜곡은 일시적일 뿐, 어떠한 격동과 일탈도 자연의 질서, 즉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맡든, 우리는 가치를 만들고,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좌표를 응시하며 비전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보여주신 해상근무자 여러분,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 세계 각국의 하림가족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신 목표를 이루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림그룹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하림그룹 회장 김 홍 국





하림 가족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밝은 기운이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기본에 충실하되, '변화'와 '도전'이라는 경영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상황이 어렵지만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우리의 일에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CEO부터 현장사원까지 조직문화로 정착된 'HBH'와 글로벌 스탠다드인 'SAP'을 통해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위기의 시장을 돌파 해나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혁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째, 안전과 5S는 최우선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현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충분한 교육과 안전 수칙 준수, 위험요인의 사전제거 등으로 안전과 5S에 최우선해야 합니다. 안전과 5S 활동을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현장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갑시다. 각각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패트를 활동을 강화하여 미리미리 예방보전하며,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즉 실천으로 빠르게 개선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둘째, 최고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림의 식품철학과 행동원칙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 최상의 고객 서비스, 청결한 위생관리를 실현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과 고객은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요구하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쉽게 돌아섭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객의 가치소비에 기여이 부응해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모든 조직은 'Stretch Goal' 사고로 도전해야 합니다.

각 조직의 리더는 자율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권한과 책임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에 대해 일일 과정관리와 목표달성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방식을 벗어나 업무 혁신을 도모해야만 달성가능한 수준의 Stretch goal 목표를 설정하여 변화하고 도전하는 현장 실행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산성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최일선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현장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 창출을 위한 최고의 경쟁력은 고객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대형유통할인점, 편의점, 급식, B2B, 대리점 및 2차점, 프랜차이즈 등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KU 확대 및 진열관리가 개선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RnD와 영업/마케팅이 어느 조직보다 앞서나가야 합니다. 매장의 진열 관리는 고객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시장 확대와 생산성 개선,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해 나갑시다.

끝으로, 준법과 ESG경영에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제도와 법률에 준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 해나가야 합니다.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며, 하림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과 ESG경영에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농가, 지역사회, 주주, 구성원이 더불어 성장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 층 강화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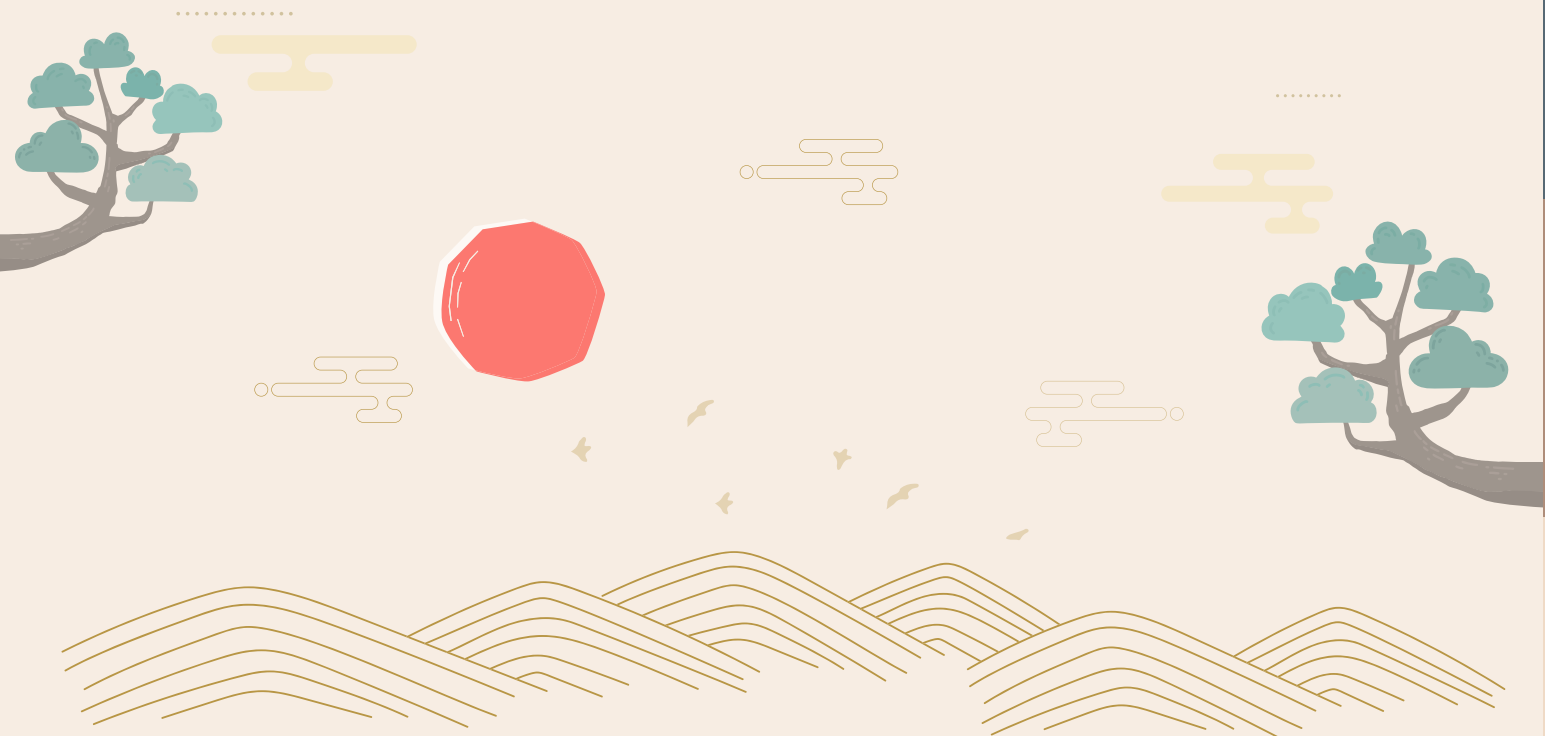
하림 가족 여러분!

2025년, 하림 임직원과 하림의 농가, 대리점, 협력업체 모두가 새해의 밝은 기운 듬뿍 받으시기 바라며,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채우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01. 02.

(주)하림 대표이사 사장 정호석



2025 임원 승진



정낙운 이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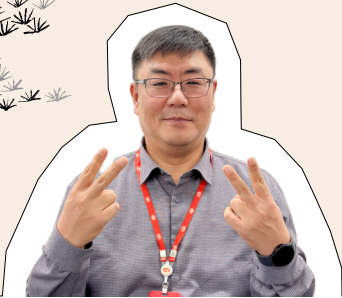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익산가공공장 정낙운입니다

25년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는 시점에 임원 승진이라는 큰 영광이 저에게 주어짐을 감사하고, 그동안 하림과 함께하면서 지낸 29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림과 맺은 인연이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일하고 즐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지금의 이 영광은 매 순간마다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믿고 따라와 준 공장식구들 덕분입니다.

25년은 24년보다 더 힘들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위기는 기회와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한걸음씩 성장하는 하림인의 저력을 보여 줄 수 있는 25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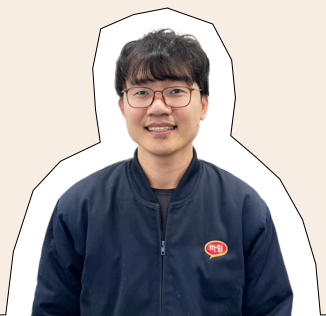
인정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하면서 부담이 더 커진 만큼 현재보다 더욱 분발하고 책임감 있는 언행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하림 뱀띠 직원들의 2025년!



강병권 팀장
사육2팀

2000년 하림에 입사해 24년 동안 하림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회사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묵묵하게 가정에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올해는 좋은 아빠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더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가족여행을 자주 하면서 행복을 더 쌓고 싶습니다.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에 모든 사우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배영석 사원
생산지원팀

2024년은 국가 내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 큰일들도 있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수술하시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안 좋았던 일들은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저희 집 모두 평안,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임 사원
생산1팀(가)

뱀띠 해에는 재물과 풍요로움은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하림에게도 풍요로운 재물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하림인이에요. 저는 하림에 입사한지 10년이 되었고, 준비조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전기팀에 있는 든든한 우리 사위. 올해도 하림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김주형 사원
물류팀

2024년은 제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시도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좌절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그게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준 것 같습니다. 2025년 바람이 하나 있다면 을사년은 뱀띠의 해인데, 이 을사년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은 해라고 합니다. 하림 임직원 모든 분들이 기회는 잘 잡고 위기는 뱀처럼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1

‘사랑의 라면’ 기부로 행복 나눔 실천
지역 내 복지시설, 저소득층 가구에 3,450상자 기탁



우리 회사와 익산시(정헌율 시장)가 지난달 30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담은 ‘사랑의 라면 3,450박스(1.13억 원 상당) 기탁식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3일,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더미식 장인라면’ 3,450상자를 전달했다. 이 라면은 익산시 관내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협력해 도움

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와 시설에 전달했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 회사는 매년 연말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라면과 백미 등의 식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오며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첫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익산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전달해 왔다. 2022년부터는 더미식 장인라면을 후원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에도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하림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 지역 아동 결식 예방 프로그램 ‘아침 머꼬’ ▲글로벌 학생과학 캠프 운영 ▲초등학생 장학도서 후원 ▲삼계탕 나눔봉사 ▲장학금 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탐방 행사지원 등 매년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2

2024년 동아리자랑대회 성료
11개 우수동아리에 포상과 격려



우리 회사가 지난달 17일 ‘2024년 동아리자랑대회’를 열고 현장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 우수동아리 포상 등을 진행했다. 정호석 대표이사와 각 사업대표를 비롯한 동아리 리더, 동아리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72개 동아리 중 본선에 오른 11개 동아리의

현장중심 개선활동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발표했다. 이 자리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창의성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성과 축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 동아리자랑대회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례, 작업환경 개선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를 비롯한 위생관리시스템 개선, 생산성과 품질향상, 불량률 최소화, 용수절감 등에 관한 개선사례들이 발표되며 큰 호응과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시상식에서 ▲해돋이동아리가 대상(상금 300만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고 ▲최우수상(상금 250만원)은 오솔길/햇님동아리 ▲우수상(200만원) 2팀 장군동아리, 텔레파시동아리 ▲장려상(150만원) 3팀에게는 로또, 티오피, 동그라미 동아리 ▲참가상(각 100만원) 4팀 등 총 1,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대상을 차지한 해돋이동아리 방백화 반장(정읍공장 생산2팀)은 “오늘 영

광스럽게도 대상을 받게 된 것은 동아리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아리원들이 하나 되어 현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아 즉각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에서 개선활동에 힘써주신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하고 “새해에도 현장개선과 업무역량 향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HBH(Harim Behavioral Habit) 습관화’를 통해 미리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냈고, 앞으로도 우리 조직문화가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에 빠르게 적응하는 조직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03

2024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 최우수상 선정
국내 가금류 부문 최우수 도계장으로 선정



우리 회사는 지난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에서 가금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17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매년 HACCP 기준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적용·평가해 운영 수준이 높은 도축장과 집유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애써주신 기업과 관계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농식품부도 축산물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여 우리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지난 2012년 정읍공장에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9년 익산공장에 2,6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생산라인에 HACCP과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축산물 품질인증’ 시대를 열고 포장육과 부분육, 양념육 시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오며 용가리치킨, 치킨너겟, 삼계탕 등 가장 신선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특히 무항생제·동물복지 브랜드인 ‘자연실록’과 안전과 신선함을 최고의 가치로 만든 브랜드인 ‘프레쉬업(Fresh-Up)’ 등 프리미엄 닭고기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받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국내 최우수 도계장으로 선정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며 “하림은 도계장의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가장 신선하고 최고로 안전하고 맛있는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4

‘스마트앱어워드 2024’ 브랜드부문 통합대상 수상
하림 공식 온라인몰 ‘하림몰’ 앱 출시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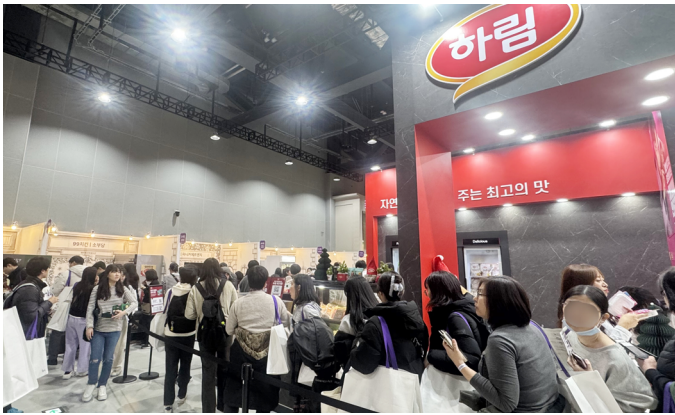
우리 회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이 지난달 18일 ‘스마트앱어워드 2024’ 시상식에서 브랜드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스마트앱어워드’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에서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 앱 시상식이다. 올해도 국내 인터넷 전문가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앱을 선정했다. 하림몰은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고기 등 신선육부터 용가리치킨 등 가공육, 다이어트 도시락과 국탕류까지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다. 하림몰은 ‘스마트앱어워드’에 이어 ‘웹어워드코리아’에서 식품 쇼핑몰분야 대상까지 수상하며 2관왕에 빛났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하림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매월 하림몰 한정 프로모션(하데이), 앱 전용 할인 쿠폰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고객 친화 서비스에 힘을 쏟은 결과, 올해 하림몰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7% 가까이 증가했다. 하림몰 애플리케이션은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통해 혜택 · 할인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하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스마트앱어워드 2024’에서 통합대상을 받았다. 하림의 신선한 닭고기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시식도 할 수 있는 ‘하림 치킨로드(HCR)’ 투어 신청 탭을 개설해 접근성을 높인 점도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하림은 2개 부문 수상을 기념해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하림몰에서 판매 중인 전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기존 3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제공되던 무료배송 서비스를 2만원 이상만 구매해도 누릴 수 있다. 하림몰 관계자는 “내년에도 고객들이 하림의 다양한 제품을 더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림몰의 서비스와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05

컬리푸드페스타 2024 참가
제품 시식, 참여형 이벤트 등 성황



우리 회사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르웨스트에서 열린 '컬리푸드페스타 2024'에 참가해 소비자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지난달 19일~22일까지 진행된 '컬리푸드페스타 2024'는 '모두를 위한 컬리마스(Merry Kurlysmas for All)'라는 슬로건 아래 크리스마스 마을에서 펼쳐지는 홀리데이 미식 축제 콘셉트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를 비롯해 컬리가 선정한 128개 파트너사, 2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우리 회사는 컬리의 대표 축산 파트너사로서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컬리 인기 상품인 '자연실록 IFF 큐브 닭가슴살'을 비롯해 '용가리 치킨' '햄' '수비드 닭가슴살' '도넛 치킨' '오!늘단백 쿠키' 등 하림의 다채로운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했다. 1시간 마다 메뉴를 바꿔 가며

'자연실록 IFF 큐브 닭가슴살' '용가리 치킨' '치킨 너겟' '닭가슴살 핫도그' '더미식 라면' 등을 맛볼 수 있게 한 시식 코너는 줄이 끊이지 않았다.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반응이 뜨거웠다. 알찬 구성의 하림 선물세트부터 '용가리 술잔' '파우치' '스트링백' 등 실용적인 경품이 걸린 게임이 하루 세 번 진행됐다. 부스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하림 공식 온라인몰 '하림몰'에 가입만 해도 닭가슴살 단백질이 들어간 프로틴 쿠키 '오!늘단백'을 비롯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마케팅팀 관계자는 "컬리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하림의 다양한 제품을 즐겁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컬리푸드페스타에 참여했다"며 "22일까지 마켓컬리에서 특별 기획전도 진행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06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아동 보호 중요성 등 위한 범국민적 실천 운동 동참



우리 회사가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공동체가 이번 캠페인 릴레이를 통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지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으로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림은 지난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자경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역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을 모아 ▲성·가정·학교폭력 및 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살인·강도 등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에 상호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물품후원, 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에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정호석 대표이사는 고양원 익산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고 다음 참여자로 세솔건설 임광수 대표이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조현정 원장을 지목했다.

07

돌아본 24년, 2025년 새로운 목표 수립
각 사업본부별 워크숍 개최



가공식품사업



사육사업부



중계사업부



직할



하림그룹임원워크숍

우리 회사 각 사업본부는 지난달 워크숍을 개최했다. 각 사업본부는 2024년을 회고하며 리뷰하고 2025년 나아갈 방향 및 계획을 전달했다. 지난달 6일 진행된 하림그룹 임원 워크숍에서

는 HBH(Harim Behavioral Habit) 습관화, 일관리의 중요성이 핵심으로 꼽혔다.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일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 조직 문화를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각 사업본부는 지난달 9일 가공식품사업, 13일 직할본부 및 사육사업부, 18일 중계부화사업부 등의 워크숍을 통해 단단하고 탄탄한 미래를 다짐했다.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08

하림X한국조리과학고 창작요리경연대회 개최
하림 제품 활용한 메뉴 개발 경연대회 열려



우리 회사 가공식품사업 급식팀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창작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가공식품사업 제품을 활용한 메뉴 레시피 개발 경연대회로 한입씩 큐브 허브 훈제 정육, 통살 가득 손살 치킨을 주제로 진행됐다. 1학년 총 216명을 대상으로 3인 1팀, 총 72개 팀이 참가했다. 시상 기준은 대중성, 창의성, 조리과정, 맛/작품성 등으로 평가됐다. 대회에서는 불고꼬북음, 하림 삼대륙 타르트, 치킨 빠스 주먹밥, 유린파스타에 빼졌닭 등 다양한 메뉴가 출품됐다.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은 1학년 1반 6조(방윤지, 박소은, 김예나)의 '치킨 파타야 & 치킨 반미'가 수상했다. 간단한 조리과정, 제품의 맛의 돋보일 수 있게 잘 살린 점 등이 수상배경으로 꼽힌다. 대상을 수상한 방윤지, 박소은, 김예나 학생은 "맛있는 하림 닭고기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요리해본 시간들이 떠오른다"며 "같이 준비한 시간을 대상으로 보상 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를 준비한 급식팀(가) 백지혜 사원은 "1차로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5개 모든 요리학교에서 창작요리 경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의 기발함과 요리에 대한 열정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09

사양관리 포스터로 건강한 닭을 키워요
입주~출하까지 한 눈에 보는 사양관리 매뉴얼 제작



우리 회사는 최근 사양관리 매뉴얼 포스터인 '한 눈으로 보는 사양관리 매뉴얼'을 제조하고 농장 등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 포스터는 농장들이 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 장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입주 전 준비사항, 사육 시 일별별 표준 중량 및 사료 섭취량, 출하 후 관리 등 사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이상적인 계사환경 기준, 상대습도, 점등관리, 사육밀도, 온도관리, 열량지수 등 사육에 꼭 필요한 것들이 정리됐다. 사육사업부는 농장 내 잘 보이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해 확인하며 사육,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성 사육사업대표는 “닭 사육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알아보기 쉽게 제작했다”며 “가장 기본적인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농장들이 잘 숙지해 사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내기자 | 강승현 사원

10

따뜻한 마음 모아 이웃에게 선물해요
정읍공장, 사랑의 간식 나눔 행사 진행



우리 회사 정읍공장은 지난달 17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사랑의 간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의 간식을 구매해 성금을 모으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 조재원 대리는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사랑과 응원에 힘을 보탬 수 있어 제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며 “앞으로도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성금과 회사모금함 성금 등으로 지난달 24일 장애인복지관, 북면사무소에 마음을 전달했다. 차대진 정읍공장장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내기자 | 김해진 과장

푸드트렌드 2025

변화하는 시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와 트렌드

우리는 식문화 변화, 세대 변화, 코로나와 엔데믹 등을 겪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푸드트렌드, 소비트렌드 등 다양한 트렌드는 소비자들의 관심사, 편의성 추구,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2025 푸드트렌드를 확인해보자.





2025 푸드 트렌드 키워드는 '농식품 및 유통 산업에서의 편중화·구획화'이다. 편중화·구획화 현상은 마케터의 의도에 의해 시장이 세분화(segmentation)되고 타깃 마케팅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와 행동,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회현상 등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시장이 형성됐다는 의미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가 과거 3년 대비 최근 1년 동안 변화된 식문화 트렌드, 최신 푸드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공유한다.

한국인의 섭취 데이터(양이 아닌 섭취 빈도)를 보니 지난 3년 대비 최근 1년간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일상식 메뉴는 일반 밥, 국탕류, 찌개류, 라면류, 김밥류, 돈육구이, 치킨, 식사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밥의 섭취 횟수, 빈도는 올라갔지만 양은 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쌀 구매율이 줄고 밥 자체를 안 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밥을 먹기는 하지만 다른 걸 섭취하면서 한 숟가락 뜨는 모양새라 즉석밥은 100g 이하, 저중량 제품이 늘 것이다. 생선구이의 섭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생선구이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간편식 생선구이, 외식 생선·해산물구이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생선구이가 싫은 게 아니라 원물을 구매해서 집에서 구이를 해먹는 게 불편해서 감소하는 것이다. 국탕류에 대한 연령대별 섭취 추이를 살펴보니 50대 빼고는 국을 잘 안 먹는다. 찌개 역시 섭취량이 줄고 있는데 혼밥의 문화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 국탕류 보다는 곰탕류 같은 혼밥에 적합한 제품을 더 선호한다. 편의점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품질도 좋아지고 있다. 편의점 주요 고객이 20대일 거라 생각했지만 데이터는 달랐다. 주 고객층 분석을 해보니 여성들은 생각보다 구매하지 않았고 남성 40대가 메인 고객, 50대들도 무섭게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김밥과 주먹밥류의 메인 고객은 40대 남성, 도시락도 남성 50대와 40대, 샌드위치도 남성 고 연령층이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여성들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형

태가 나타났다. 버거류도 늦은 오후부터 밤에 남성 40~50대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이동 많은 직군이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운송직, 대리운전 등의 직군이 편의점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그먼트 구성을 마케터가 의도했을까? 그렇지 않다. 여러 사회 상황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구획화되고 편중화됐다.

지난 8년간의 장바구니 변화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 수도권 소비자 패널의 식재료 구입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식물성 신선식품은 감소하고 동물성 신선식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성 식재료 가운데서도 구매가 더 큰 쪽으로 증가한 품목들이 있었는데 이들 품목의 특징은 바로 편의성이었다. 즉 닭 한 마리를 구매하기보다 손질과 조리가 편리한 다리와 가슴살 등 부위별 구매가 월등히 더 많이 늘었고 생선류도 횡감이나 손질 생선류 구매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구매 채널에서도 오프라인은 줄고 온라인 비중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실질 구매액은 이 기간 1.9% 감소한 반면 온라인에서의 실질 구매액은 253% 급증,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간편식 시장, 페어링 트렌드에서도 특정 그룹의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에 몰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고 그게 식품 회사나 유통회사가 의도한 게 편중화, 구획화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수익성으로 보아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선 식품의 성취방법별 주요 섭취 세그먼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식품이 아니라 포맷을 싫어한다면 포맷을 변경, 경험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취향에 맞는 구성을 만들어보는 고민, 좀 더 깊이 있는 전략을 통한 변화. 운영이 필요하다. 수많은 도전, 색다른 경험을 이어가면서 2025년 새로운 푸드트렌드를 자신 있게 맞이해보자.



미국 최대 유기농업체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이 최근 2025년 10대 식품 트렌드를 발표했다.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홀푸드의 트렌드 전망도 함께 고려하면 더욱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p>세계의 맛을 담은 스낵</p> | <p>팝콘, 감자칩 등 짭짤한 스낵에 매력. 세계 각국의 퓨전 결들인 간식류 증가</p> | <p>티타임</p> | <p>얼 그레이, 런던 포그 등 차 카테고리의 붐</p> |
| <p>만두</p> | <p>국제적 흥미가 높아지며 아시아 퓨전 음식 인기도 높아</p> | <p>더욱 지속가능한 한모금</p> | <p>음료 산업에도 적용되는 지속가능성</p> |
| <p>바삭바삭한 식감</p> | <p>그래놀라, 견과류, 바삭한 병아리콩, 버섯칩 같은 제품에 더 관심</p> | <p>한 단계 발전한 사워도우Sourdough</p> | <p>장 건강에 좋은 발효빵에 대한 인기 확산</p> |
| <p>수분 공급의 중요성</p> | <p>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음료에 대한 소비자 기대도 높아져</p> | <p>식물성 수산물</p> | <p>해초의 지속적 인기, 지속가능한 단백질과 영양소 공급원을 쉽게 구하는 수산물 수확에 관심이 증가</p> |
| <p>차세대 퇴비화 가능</p> | <p>지속가능성 요구하는 소비자에 따라 환경을 생각한 포장재 등</p> | <p>단백질 파워업</p> | <p>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위해 분말, 바 추가하는 전통적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 시도. 식사 시간의 단백질 섭취 증가 및 자연식품 간식 등</p> |

우리가 지켜줄게요! 하림지킴이 법무개선팀

법무 개선팀



염운성 부장(팀장)
법무개선 총괄



박상연 차장
내부점검 담당



김성애 과장
하림지주 파견



이상주 과장
법무담당(사육, 신선)



윤의식 과장
내부점검 담당



조광현 과장
내부점검 담당



김유진 사원
법무담당(가공, 바이오)

1.

하림 법무개선팀의 업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윤성 팀장

하림 법무개선팀은 조직 내에서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규제 준수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한 내부 점검(수시, 정기)을 통해 각 사업부, 팀에 대한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과·오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연 차장

법무개선팀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부서별/업무별 리스크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호 신뢰와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불공정 업무 관행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 발굴·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법무개선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의석 과장

팀워크와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원 혹은 나아가 다른 현업부서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팀원들과 잘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진 사원

회사에 운영되는 법적인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권이나 법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법무개선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윤성 팀장

법적 리스크 발생 예방을 위하여 채권, 계약 등 중점 사항들에 대한 사전점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처 또는 국가기관 등을 통해 민·형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때는 사전에 현업부서와 소통하고, 정소 전 대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공정위, 환경청 등 단속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범 위반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법무개선팀의 분위기는 어렵고 무거운데, 실제 법무개선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조광현 과장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어렵고 무겁기만 한 건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분위기는 훨씬 더 협력적이고 유연한 면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유쾌합니다!

5.

하림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인가요?



이상주 과장

회사 상표 도용 방지를 위해 마트나 재래시장에 방문해 식육코너에서 무단 사용 중인 하림 상표 사진을 찍으며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육코너 사장님들이 파파라치 또는 자신을 고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니다. 가끔 정신적·신체적으로 버거울 때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6.

법무개선팀을 한 가지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김유진 사원

법무개선팀을 한 가지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방패'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법적 리스크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므로 방패처럼 든든한 방어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올해 법무개선팀의 목표와 다짐을 말씀해 주세요.



전윤성 팀장

올해 법무개선팀은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채권 발생 제로화, 전사 중점 사항 체크리스트 운영 강화 이 3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부서별 계약 갱신 및 교부, 계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신용여신 부여 강화, 거래처 신용평가 시스템, 회전일 관리 등으로 부실징후 사전 파악을 통해 부실채권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사 중점 사항 체크리스트 운영을 강화하고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HBH 생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자 남대빈 사원

겨울을 녹이는 삼계탕.

이우철한방누룽지삼계탕

삼계탕을 언제 먹을지 묻는다면, 대부분 삼복더위가 있는 한여름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먹는 삼계탕은 퐁퐁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핫팩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충청남도 천안에는 뜨끈하게 몸보신할 수 있는 곳, '이우철한방누룽지삼계탕'이 있다.



<주요 메뉴>

- 한방누룽지삼계탕(대표)
- 한방녹두삼계탕
- 한방삼계탕
- 흑마늘농이삼계탕
- 닭볶음탕

<정보>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64
 전화번호 : 041-523-5259
 편의 시설 및 서비스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삼계탕 맛집으로 정평 난 이우철한방누룽지삼계탕 본점에 들어서면 '한식대접3 우송'이라는 문구와 화려한 수상 실적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가게가 넓지만 평일 낮에도 사람이 많아 눈치 싸움이 필수이다. 이곳의 삼계탕은 총 4종류로 한방 누룽지 삼계탕, 한방 녹두 삼계탕, 한방 삼계탕, 흑마늘 농이 삼계탕이다.



부드럽게 때로는 오독오독하게

이우철한방누룽지삼계탕은 40년 노하우가 담겨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진한 국물맛을 자랑한다. 각각의 삼계탕은 더 특별한 맛과 건강을 선사한다. ‘한방 누룽지 삼계탕’은 깔끔한 국물과 호불호 없는 맛을 자랑한다. 이 메뉴의 킁은 닭 위에 덮인 누룽지 이불이라고 할 수 있다. 닭을 조리하면서 즉석에서 맛있는 누룽지를 만드는데, 누룽지와 삼계탕의 콜라보가 만든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한방 녹두 삼계탕’은 녹두와 찹쌀의 비율이 5:5로 보일 정도로 아낌 없이 들어간 재료가 눈에 띈다. 삼계탕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고소한 녹두 맛이 입안을 사로잡는다.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아삭한 열무김치를 얹어 먹으면 무한대로 먹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압도적인 향을 자랑하는 삼계탕도 있다. ‘흑마늘 능이 삼계탕’. 흑마늘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은은함을 가졌다. 흑마늘을 육수에 넣어 거부감 없이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첨가된 능이버섯은 오독오독하니 씹는 맛을 더해 준다.

갠 한방 약재와 찹쌀, 닭이 오랜시간 고아져 만든 맛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채워준다. 먹고 나면 몸이 뜨끈뜨끈해져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기분이다. 삼계탕을 여름에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잊자.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하다면 몸보신으로 제격인 ‘이우철한방누룽지삼계탕’을 추천한다.



NEW!

신제품 'IFF 한입씩 닭가슴살' 2종 출시
오리지널 블랙페퍼맛, 스파이시 청양고추맛



우리 회사가 'IFF 한입씩 닭가슴살' 2종(△오리지널 블랙페퍼맛 △스파이시 청양고추맛)을 출시했다.

신제품 'IFF 한입씩 닭가슴살'은 신선한 국내산 닭가슴살을 영하 35°C 이하에서 40분간 개별 급속 동결하는 'IFF(Individual Fresh Frozen)' 공법을 적용해 딱딱하지 않다. 촉촉한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 맛있게 양념한 제품으로, 익히기도 먹기도 편리하다. 100g 당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IFF 한입씩 닭가슴살 오리지널 블랙페퍼맛'은 부드러운 닭가슴살에 소금과 후추, 파슬리를 더해 향긋한 풍미와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다.

'IFF 한입씩 닭가슴살 스파이시 청양고추맛'은 청양고추 특유의 알싸하면서 중독성 있는 매콤함이 특징이다.

조리법은 180°C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냉동 상태의 닭고기를 겹치지 않게 넣고, 약 12분간 골고루 익히면 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익혀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근육 생성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닭가슴살을 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밥반찬은 물론 샐러드나 피자 토핑 등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한입씩 닭가슴살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제품 '양념씩 닭봉' 2종 출시
중독적인 데리야키, 매콤한맛



우리 회사가 특유의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가 많은 닭봉(윗날개)에 맛있는 특제 소스를 입힌 신제품 '양념씩 닭봉' 2종을 출시했다.

'양념씩 닭봉'은 신선한 국내산 냉장 닭고기로 만들었다. 단짠단짠한 맛으로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데리야키' 맛과 알싸한 마늘 풍미가 가득해 중독성 있는 '매콤한맛' 두 가지다.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겉바속촉' 닭봉 구이 스타일로 맛볼 수 있으며, 프라이팬에 익히면 소스가 잘 배어 들어 쫄깃하고 촉촉한 닭봉 조림이 된다. 든든한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나 홈파티 메뉴로 제격이다.

신제품 '양념씩 닭봉' 2종은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하림몰(www.harimmall.com),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며,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중소형 마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최근 닭고기와 소스가 함께 들어 있거나 알맞게 양념이 되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반응이 좋아, 닭고기 중에서도 인기 부위의 윗날개를 사용해 '양념씩 닭봉' 2종을 선보였다"며 "간단히 요리해 맛볼 수 있는 양념 닭고기 제품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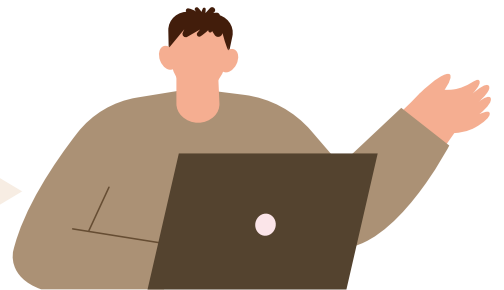
MZ, 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 내 MZ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감았습니다)

하림 문화 편 **회사 생활 중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압존법 사용 자제하기

저는 압존법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폐지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압존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 신입사원 가이드북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자와 대상자가 같은 직급일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현대 기업의 추세를 고려할 때, 압존법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자에 대한 존경과 예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압존법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의 바른 MZ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님' 호칭 사용하기

회사 문화 중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적극적인 '님' 호칭 사용하기입니다. 대부분의 팀이 '님' 문화를 실천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부서에서는 -선배님, -씨, -아 등의 호칭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하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 받을 수 있는 -님 문화를 적극 사용하여 좀 더 수평적인 회사 문화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하기

저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MZ세대는 기업 규모보다 임금, 복지 등을 중시하는데, 특히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무시간을 조정해 집중력 높은 날에는 성과를 높이고, 휴식이 필요한 날에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근무시간으로 책임감을 판단하기보다는 효율과 성과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하기

팀 별 제비뽑기나 사다리타기를 통해 1~2명,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3시간 조기 퇴근하기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많은 기업들은 패밀리데이, 자율 조기퇴근 제도 열리고(Early Go), 심포데이나 웰니스데이와 같은 조기퇴근제를 도입해 충분한 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조기 퇴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소규모 인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은 주말·휴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한 여가·여행이 가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하림

**2024년 12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회사 정읍공장은 지난달 11일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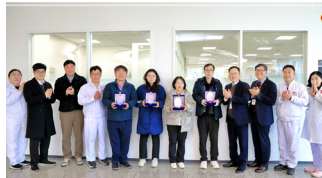
지난달 12일 지속경영팀 김은중 과장이 익산시 나눔의날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달 9일 제28회 전북예총하림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예술인 7명에게 본상을, 2명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10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16일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북부지소 검사관, 수출실험담당자 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지난달 24일 우리 회사가 '아침머꼬' 조식지원 어린이들을 위한 치킨박스 선물을 전달했다.



우리 회사 신우회는 지난달 24일 임직원들을 위해 성탄을 축하하는 축복송을 선물했다.



지난달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양창호 식품안전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30일 사회공헌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신선식품사업 고한호 대표가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2월에는 권오규 전 부총리, 광주지청장, 중국 산둥성농업과학원 기금연구소, 전주국제협력진흥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GS수퍼, CJ프레시웨이, 육군훈련소 등 2,480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꼭! 소리 나는 하림 용어 사전

육계

삼계

토종닭

삼계탕 닭이랑, 치킨 닭이랑 다르다고?



육계

주로 치킨,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 무계별(100g)로 호수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ex. 800g은 8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종량은 11호 (1051~1150g)

가슴이 크고 다리는 짧지만 통통한 육계. 가슴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담백하고, 다리 부위는 쫄깃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이용됩니다.

하림 기준 약 31일 사육 (24년 기준)

삼계

주로 삼계탕 용도로 사용되는 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종량은 50호 (500g)

삼복에 가장 인기 있는 닭인 삼계. 주로 보양식에 사용되는 닭이에요. 육용 종계와 산란계 암컷을 접합시켜 생산한 품종으로 닭은 부드럽고 살이 연한 편이며, 지방이 적당히 있어 뽀얀 육수가 잘 우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림 기준 약 37일 사육 (24년 기준) (영계는 육계의 어린 닭이에요!) 삼계와는 엄연히 다른 닭

토종닭 (맛닭)

주로 백숙에 사용되는 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종량은 18호 (1.8kg)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보는 갈색털을 지닌 닭이 바로 이 토종닭이에요. 순수혈통을 유지해온 재래종으로 최소 7세대 이상 계대가 유지된 닭이에요. 육질이 질기고 맛이 진하며, 오랜 시간 요리할 때 깊은 맛이 우러나요. 전통적인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돼요!

하림 기준 약 85일 사육 (24년 기준)

새내기자 | 이민정 사원

이달의 Quiz

이 닭은 무슨 닭일까요?

뚝배기에 뽀얀 자태를 보이는 이 음식! 뜨끈한 국물과 같이 먹으면 한 그릇 순삭하게 만드는 삼계탕에는 어떤 닭을 사용할까요?



- ① 육계 ② 영계 ③ 삼계 ④ 토종닭

제 223호 당첨자

- 전*람 서울시 강남구 김*현 전주시 덕진구 김*은 사천시 사남면 김*민 서울시 영등포구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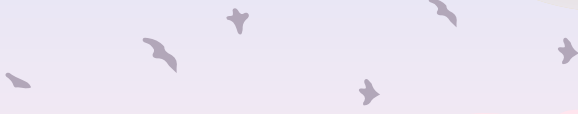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지난 호 정답 치킨 (하림치킨로드)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지혜와 용기로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422 www.harim.com